

# 명량대첩축제 최첨단 기술로 승리의 감동 전했다

### 대표 호국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 18~20일 15만명 찾아 성황 명량 해전 재연·회오리 불꽃쇼·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볼거리 풍성

20일 폐막한 '2024년 명량대첩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명품 축제로서 차별화를 드러내면서 사흘 동안 전국 15만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드는 축제로 자리잡았다.

축제는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해전을 선보이면서 호국 역사문화축제의 차별화를 보여 주는 한편,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경연·참여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진도-해남 울돌목 일대에서 지난 18일부터 사흘 간 펼쳐진 '2024 명량대첩축제'는 15만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세계적 역사·문화의 장'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날 폐막했다.

명량대첩축제는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미디어 해전을 비롯, 회오리 불꽃쇼,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해군과 해경의 울돌목 해상퍼레이드 등 화려한 볼거리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개막식 메인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ICT 융복합 미디어 해전'은 대형 스크린(4면)과 LED 대북 등을 활용한 주제공연에 바다 맵핑, LED 페어링을 더해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로 펼쳐져 관광객들의 시선을 붙들었다.

현장에서는 판옥선 오브제, 회오리 불꽃쇼 등으로 400여년 전인 1597년 9월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대파한 해전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조선수군 병영재현, 케이팝 커버댄스, 조선

수군 무예대전, 명량 치어리딩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공연·경연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흥을 돋웠다.

축제 진행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전남도는 행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우천과 추위·강풍 등에 상황을 파악하면서 비옷과 바다매트, 무료담요를 배부하고 해상에서 실시되는 일부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한편, 진도대교와 해변데크에 안전요원을 확충하는 등 축제 안전관리에도 공을 들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축제 기간 기상상황으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수 없었지만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해 의미가 깊었다"며 "전남도가 2024~2026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선포한 만큼 지역 주민과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대표적 역사문화 축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76년의 여순10·19,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수·순천 10·19사건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기 합동 추념식

### 한덕수 총리·우원식 국회의장 등 참석... 진상규명 노력 약속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기를 맞아 합동 추념식이 지난 19일 보성 한국차문화공원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추념식은 특별법 제정 이래 세 번째 정부 후원행사로 열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주현철·조계원·김문수·문금주·권항엽·신정훈·박근택·전하람 국회의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선호 여수 전국유족 총연합 상임대표와 여수사건 유족 600여 명도 참석했다.

추념식은 "76년의 여순10·19,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라는 주제로 여순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사이렌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헌화·분

향, 추념사, 유족사연 낭독, 추모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여순10·19사건의 희생자인 고(故) 이병관님이 다시 세상에 나와 고령이 된 아들에게 편지를 전해 참석 유족과 도민의 눈시울을 붉혔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는 등 앞으로 여순사건이 지워진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76년의 여순사건이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전남도가 꺼지지 않은 등불이 되 환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 GGM 노사에 광주형일자리 원칙·정신 준수 촉구

### "노조, 지노위 조정 중 파업 투표 유감... 노사 간 적극 중재할 것"

광주시가 극단적인 파업 위기를 간신히 넘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를 향해 광주형 일자리의 원칙과 정신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GGM은 고비용·저효율의 대한민국 제조업 구조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9년 설립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의 성실한 협력이 장인정신"이라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중 유일하게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 협정서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GGM 출범 당시 노사민정이 합의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르면 노사는 누적 생산대수 35만대까지 상생협의회를 통해 근무환경과 조

건 등을 협의한다. 현재 GGM은 14만 4000여대를 누적 생산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690명이다. 이 중 지역주민이 96%이고, 20·30대 청년은 82% 이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GGM은 특히 올해 캐스퍼 전기차 생산 및 해외 수출을 시작하며, 내년까지 200여명의 신규 인력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은 매년 7만대를 생산하겠다고 했으나 연 5만대에 그쳤고 장기간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주책 지원 대신 임대료 월 30만원만 지원하는 등 낮은 연봉을 보완하는 사회적 임금 합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전남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을 신청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진행했으며, 지난 17일 GGM 노사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노사가 받아들인 권고안은 교섭 장소를 사내 상생관·사의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서 업무시간인 오후 3시 교차 방식으로 열고, 주 1회 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교섭이 필요하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지만, 노조가 조정절차 중 파업 찬반투표를 서둘러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GGM 노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노사민정 협의회 중재조정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홍보 알아서 할게요"... 공무원들 셀프 홍보 쇼츠 '눈길'

### 오늘부터 '모두의광주'서 공개 우수작 투표·1위 맞추기 이벤트도

광주시 공직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시정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광주시 종합홍보플랫폼 '모두의광주'를 통해 직원들이 직접 만든 홍보 쇼츠영상을 선보인다.

내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18개의 작품들로, '모두의광주(news.gwangju.go.kr/modoo

/)' 시민광장 채널에 공개된다.

광주시는 '제 홍보 제가 알아서 할게요'를 주제로 지난 8월부터 두달여 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셀프홍보어워드' 기획이벤트를 진행했다.

시는 '모두의광주'에서 시민이 가장 많이 본 영상과 공감(좋아요)을 가장 많이 받은 영상 등 2개 부문으로 구분해 각각 우수작을 선정한다. 우수작은 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튜브'에도 게시된다.

광주시는 시민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셀프홍보어워드, 1위를 맞춰라' 등 시민 대상 이벤트도 함께 열고 1등을 맞춘 응모자 50명에게 1만원 상당 커피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이번 셀프홍보어워드를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보다 재미있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시청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들어 광주시가 직접 제작한 홍보 영상들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만든 영상 중 10만 조회수를 넘긴 콘텐츠만 10편에 이르고, 이중 '5·18 시내버스 무료 운영', '광주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주제로 만든 릴스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넘겼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집 근처 소각장 설치 찬성 36→54%로 늘어"

### 광주시의회, 소각장 설치 설문조사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자신의 집 근처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거주지 인근 설치 수용 여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 중 54.4%는 '수용 가능'을, 45.6%는 '수용 불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2월 광주시가 했던 설문조사(3205명·찬성 36.6%, 반대 48.8%)보다 찬성 비율이 크게 높아진 조사 결과다.

광주시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작·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대체 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으며, 소각장 설치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다만 도심 내 소각장 설치 시 '대기 오염'(33.4%)과 '건강 위험'(33%) 등을 가장 많이 우려했으며, 해소 방안으로 '환경 오염 대응책 마련'(42.9%), '주변 공영 조성·환경 개선 사업'(29.3%)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최지현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소각장 설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소통이 요구된다"며 "광주시는 설치 예정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현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http://www.kwangshin.ac.kr)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